

다산포럼

서울도서관과 스케이팅



조상호 (주)남출판 대표이사

새해는 항상 설렘과 함께 온다. 그래서 미지의 순백 같은 가능성을 꿈꾸며 나름의 다짐을 한다. 그러나 남아 있는 세월이 손에 잡힐 듯 해아리지면서 새해의 찬란함도 그저 그런 일상이 될 무렵에 하늘이 3세를 선물로 안겨준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치사는 아부인 줄 알면서도 싫지 않은 ‘손자 바보’가 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김강민이 그 녀석이다. 갑자기 할 일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바빠진다. 눈길을 마주치면 웃음도 띄울 줄 아는 딸도 되지 않은 손자에게 세상구경을 시켜주고 싶어 안달이 난다.

새 이가 나오면서 간지러운지 오물거려 보기도 하고, 손가락을 넣어 부지런히 빨기도 하는 손자를 안고 처음으로 서둘러서 서울도서관을 찾아 나섰다. 서울광장을 건너기 전 무교동쪽 부산은행이 있는 빌딩 앞에 다소곳이 자리한 돌에 새긴 ‘어린 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이라는 시비의 글귀가 섬뜩처럼 스쳤다. 20년 넘게 그 앞을 스쳐 지나갔던 오늘에야 눈에 띈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발견했을 뿐이다. 지훈상 운영위원으로 모셨던 김종길 원로시인의 ‘살날 아침’이었다.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지만다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때론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몰려오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시청 광장에 다시 섰다. 손자가 자라 그를 세대가 꿈꾸는 광장은 또 어떤 모습일지 전혀 상상할 수는 없다. 유리로 뒤덮인 새 시청사는 위용을 뽐내지만 그 모습은 눈에 살다. 다형히 당초 설계에는 없는 장승과 느티나

무 몇십 그루가 심어져 삭막함을 감추게 한다. 이제는 유물처럼 자그마해진 일제 식민지통치의 잔재인 구청사를 전부 부수지 않고, 시청 도서관으로 개조한 열정적인 독서가인 박원순 시장의 문화러더십이 고마웠다. 어쩌면 서울 르네상스 같은 현란한 선전문구로 도배되었을지도 모를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선택한 시민의 기쁨이 이런 것이다. 높은 책장의 벽엔 책이 가득하고 넓은 계단을 꼭 채우고 있는 창조적인 상상력의 공간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아이들이 책에 빨려들어간 모습은 장관이다. 종이 쭉시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녀석들도 있다. 처음 경험하는 도서관인데 조금 부산을 떨더라도 웃어넘기기로 했다. 바로 문을 열면 시청광장에서 스케이트를 치고 있는 친구들보다야 훨씬 인내력 있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한 세대가 지나면 이 사회를 이끌 풍나무들이 그들 속에서 성장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겨울 산은 낙엽 떨어진 그 나무의 키만큼이나 다소곳이 낮아진다. 폭설로 쌓인 눈으

로 다시 키가 커진다 해도 그 고즈넉한 나무들의 합창으로 포근하긴 마찬가지다. 겨울이 한겨울로 상숙하는 원시의 폭설 속에 남산수목원 산행에 초대된 외우(畏友) KBS 임병걸 시인이 ‘세상 가장 큰 책’이란 시를 선물했다. 과거완료형이 아닌 ‘푸른 침표’라는 시구의 새해 축복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세상을 향해 종이 위에 침묵의 말 건네던 사람 언제부터가 더 큰 침묵의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는 뿔뿔이로 모음을 쓰고 나뭇가지로 자음을 썼다. 흐르는 계곡의 물과 능선을 넘어온 바람으로 줄거리를 만들었다 / 책은 나무가 산고 끝에 일태한 아들 평생 책의 아들이었던 그는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듯 나무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구상나무 심고 세상이 그리울 때 빼앗긴 부지가 심었다 세상이 답답할 때는 쪽쪽 뺐는 낙엽송 심었고 세상에 고향치고 싶을 때는 활활 타오르는 자작나무 심었다/ ... 마침내 세상 가장 큰 책을 쓰고는 흙뽀든 등산화에 낡은 침바지를 입은 그도 한 그루 느티나무가 되어 책 속의 침표로 찍혔다. 겨울에도 푸른 침표로.

NGO 칼럼

고려인 자치구를 꿈꾸는 고려인협동조합



이천영 (국인근로자문화센터 대표·광주새날학교 교장

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주거, 취업, 교육, 비자문제 등 매서운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비해 비슷한 맥락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정착비와 주택, 교육과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받고 있다. 결국 이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인마을주민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과 방과 후 교실, 취업이나 의료상담, 출입국 상담을 하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인마트와 여행사 등도 설립,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또 하남산업단지와 평동산업단지 등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려인 노동자들이 자금을 모으고 투자를 유치해 고려인들만의 협력업체도 설립할 계획을 꿈꾸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마을협동조합은 재외 동포들이 귀국해 설립한 최조이자 최대의 협동조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설립 초기 400~50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원하고 있어 이 정도의 규모이면 자립도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려인들이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다수 고려인들이 월세로 단독주택·하방을 임대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문제로 인해 언제든지 고려인마을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광주겨주 고려인들은 광주시와 고려인자치구를 설립 고려인역사관을 비롯한 관광특구를 조성하여 다함께 안심하고 살아갈 주거공간을 갖춘 문화마을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다. 고려인자치구를 조성, 고려인 수난사를 기록한 역사관과 더불어 고려인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관광특구를 만든다면 순천의 낙안읍성이나 정밀박물관처럼 연중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귀중한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또 살아있는 역사박물관(구한말 고려인 수난사)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국가관 정립 및 애국심 고취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깨우는 일석이조의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나라 잃은 국민들의 서러

움과 고통을 인식하기 위한 독립기념관이 있듯이, 세계 인권도시를 추창하는 광주에 고려인자치구를 만들고 한민족의 수난과 또 영광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역사관을 조성하여 고려인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하며 마음 놓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국가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국가도 지난 세월 고려인을 눈감고 방치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수 있으리라 믿으며, 쓰러진 과거가 두 번 다시 이 땅에 점철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발휘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려인마을 협동조합구성원이 고려인역사관과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세계적 인권도시 광주시민 모두가 ‘고려인 역사관과 자치마을’을 통한 고려인마을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도록 마음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기고

안전한 음식으로 행복한 설을



이윤숙 (광주시 식품안전과장

절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수식품으로 보관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도 집중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표백제, 타르색소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여부도 검사한다. 이렇게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소비자 차원에서 도 설 명절 음식의 식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설 명절에는 한꺼번에 다량의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식탁에서의 식품안전성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추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행복한 설 명절,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제수용 식품류는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가공·포장된 것을 구입하고, 필요한 최소량을 잘 결정하고 구매해야 한다.

음식 조리하는 식사 인원에 따라 정확한 양만큼을 가열 조리 하며, 음식물 내부 온도 85℃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한다. 부득이 많은 양을 보관해야 할 경우 조리 직후 덮개가 있는 용기에 나눠 냉장 보관하고, 냉장고 내에서 일부 식중독균이 증식하므로 사용하는 냉장고는 설 전에 미리 깨끗이 청소·소독해야 한다. 식사는 개인별 찬기를 쓰거나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상차림을 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다. 혹은 남은 음식이 있다면 재사용하지 않고 버리고, 부득이 보관해야 할 경우 신속히 냉장고에 넣어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재사용할 때는 완전히 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만약, 식중독으로 인해 설사를 할 때면, 기름기 없는 가벼운 미음이 도움이 되고 보리차를 충분히 마심으로 탈수를 예방해야 한다. 심한 설사와 복통과 함께 이소 구토 등이 심하게 진행한다면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설 명절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높은 열량 음식·고나트륨·지방 등의 과다 섭취에도 주의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에

는 평소보다 과식하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신체 활동은 줄어들어 체중이 늘기 쉽다. 그러므로 섭취 시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 소금량을 줄이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굴뚝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등 개인별 적극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끼에 떡국과 잡채, 동그랑땡, 새우튀김, 조기구이,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고 후식으로 약식과 단감을 먹은 경우 총 섭취 열량은 1473칼로리로 일일권장섭취량(기준 2000kcal)의 약 74%에 이른다. 이렇게 튀김이나 볶음류는 열량과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므로 조금만 섭취하고, 나물류와 과일류는 대체적으로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해를 시작하며 덕담을 나누고 새해 소망을 가다듬는 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차례에 쓸 음식은 알맞은 양을 준비해서 남은 음식이 없도록 해 식품 안전은 물론, 개인 영양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젊은 부부 옥죄는 ‘허니문 푸어’ 대책 시급하다

결혼을 안 한 남녀들에게 부모와 주변 지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빨리 결혼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의 속뜻은 결혼 전에는 돈을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딸린 자식이 생기면 그런 생활 태도가 바뀐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그 이유는 요즘 같은 경제사정으로 볼 때 소위 ‘허니문 푸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신혼생활 자체가

가정경제를 옥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의 삶이 추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대가 훌쩍 넘는 전셋값과 1000만 원은 족히 드는 예식 관련 비용으로 젊은 부부는 이미 결혼과 함께 속절없이 ‘허니문 푸어’로 전락하게 된다. 마치 빛이 빛을 부르는 구조인 데, 한번 빠진 거액 대출의 검은 빛에서 젊은 부부들은 쉽게 헤어나갈 수 없다. 젊은

부부가 힘을 모아 빚을 갚았다며 신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밀 빠진 독처럼 푼돈과 목돈이 드는 결혼생활은 첫 단추부터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결혼하지 않는 세태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도 경제적 어려움 탓이라는 게 맞는 말이다. 하지만, 신용도 나빠지고 높은 대출 이자에 저축도 어려워지면서 젊은 부부들은 이렇게 점점 가난의 수렁에 빠지는 데, 생활여건은 더욱 악화되지만 한다. 그래서 역대의 전세금을 피해 출근만 해도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광주시 번두리에 살게 되거나 광주 시내 방 한 칸의 원룸에 자리를

잡는 건 많은 젊은 부부의 모습이 됐다. 일전에 결혼한 후배는 직장에서 가까운 광주에서 살겠다고 방 한 칸 집을 구했는데, 엉덩이 돌 자리도 없었더니 결국 그 친구도 방이 좁 넓고 큰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방은 커졌을지언정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보니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결국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 건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가 갖춰 있는 고민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순례·광주시 북구 대충동

社說

정부, 기초연금마저 지방에 떠넘기다니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보장액도 두 배로 늘린다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남도의 추가 예산이 최소 6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도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급될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는 모두 3289억 원에 이른다 고 한다. 이는 국비 84%에 도비 3%, 시·군비 13%로 총당첨 예산 자자체가 20%, 67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최저 2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당선인 공약사항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늘게 됐다. 가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전남도와 일선 시·군으로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고, 도내 군 단위는 대부분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곳이 수도룩하다. 지방 재정이 이렇게 약화된 건 역대 정부의 ‘호남 소외’와 이명박 정권의 지방 ‘홀대’가 맞물린 데 있다. 반면한 기업이 없고, 인구는 갈수록 줄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국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겨 재정운용이 한계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기초연금마저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지방 죽이기’나 다름이 없다. 기초연금은 성격상 국가 소관사항으로,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좋다. 여의치 않다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지방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안 된다. 지자체가 흔들리면 정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고, 도내 군 단위는 대부분 10% 미만에

롯데마트 월드컵점 임대료 재협상해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의 광주시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에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롯데마트가 개점 후 5년간 영광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역사관을 조성하여 고려인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하며 마음 놓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국가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국가도 지난 세월 고려인을 눈감고 방치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수 있으리라 믿으며, 쓰러진 과거가 두 번 다시 이 땅에 점철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발휘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려인마을 협동조합구성원이 고려인역사관과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세계적 인권도시 광주시민 모두가 ‘고려인 역사관과 자치마을’을 통한 고려인마을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도록 마음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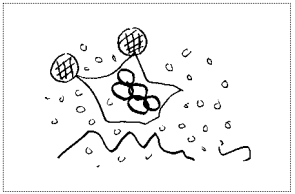
이처럼 매출액이 증가하는데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광주시가 2007년 롯데쇼핑과 협약 당시 ‘월드컵점의 연 매출이 3000억 원이 넘을 경우 영업효율을 반영해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에따라 월드컵점은 향후 매출이 증가한다 해도 3000억 원만 넘지않으면 임대료를 인상해줄 필요가 없다. 이는 일반상가 임대료 산정법과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특히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당시 감정평가 결과, 연 임대료가 7억1700만 원인 점을 감안해 경쟁입찰에 나선 롯데쇼핑측과 계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변명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이제라도 공익적 차원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임대료 인상을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롯데마트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임대료 인상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앞으로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예요.” 지난달 29일 ‘2013 평창 동계 스포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박모세(21)씨의 꿈이다. 박씨는 임신중보 기형이 발견돼 탄생후 대뇌 70%, 소뇌 90%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대부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기적을 일궈낸 박씨의 성장 스토리는 개막행사를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지구촌 지적(知的)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3 평창 동계 스포셜올림픽’이 8일간의 열전을 벌이고 5일 폐막한다. 전세계 106개국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선수들은 유전적 또는 후천적 질병이나 뇌의 장애로 인해 지능발달이 뒤져 남들이 보기에도 조금 어눌하고 행동이 느릴 수 있지만 인생과 게임의 ‘승리자’임을 당당히 증명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소외되고 뒤처진 지적장애인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 침체된 경기 탓에 위축되고 힘겨워 하는 이때, 평창 설원과 빙판의 선수들은 좌절하고 실의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다. 광주·전남출신 선수들의 선전도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쇼트트랙 종목에 출전한 광주 김도형·윤좌환과 크로노 스킨트리 스키 종목에 출전한 전남 배종민·장한주·문창현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은·동·리본 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라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자녀를 출전시킨 부모들은 저마다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반쪽 동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고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 이번 대회 출전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들의 재능에 눈을 뜬 것처럼 앞으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해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송기록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스페셜 올림픽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채우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